

# 身體計測 및 檢査所見을 중심으로 한 四象人의 特徵에 대한 分析

李壽瓊 · 李義柱 · 洪錫喆 · 高炳熙

## 요 약

연구 목적 : 사상인의 각 체질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연구이다.

연구 방법 : 경희의료원 동서 종합 건강진단센터에 1995년 2월 3일부터 1995년 5월 10까지 내원한 검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21개 검사 소견, 체질증을 중심으로 각 사상인에 따른 특성을 빈도분석, Oneway Anova검정,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정을 실시하여 사상인에 따라 유의성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 사상인 체질 진단과 체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6례 검사자의 체질진단을 시행하고 각 사상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신체측측 완실무병 조건인 땀, 대·소변, 수면상태, 그리고 각종 검사소견을 살펴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1. 196례 검사자의 사상체질 진단 결과 太陰人 110명 (56.1%), 少陰人 58명(29.6%), 少陽人 28명 (14.3%)으로 太陰人이 가장 많았고 少陰人이 少陽人보다 많았다.
2. 직업에 따른 사상인의 분포는 사무직, 행정직, 주부는 太陰人과 少陰人, 연구전문직은 少陰人, 사기업 경영은 太陰人, 서비스직은 少陽人이 많았다.
3. 각 체질 진단 설문 조사의 특성은 QSCC(1)은 다른 체질이 太陽人으로 진단되는 경향이 높고, 1번 설문지는 少陰人 판정 정확율이 76.4%로 높았다.
4. 각 체질별 체질증을 살펴 보면 太陰人은 땀이 잘 나고 少陰人은 땀이 잘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太陰人은 식욕이 좋으며 찬음식을 좋아하고 소화가 잘되나 少陰人은 식욕이 좋지 않고 더운 음식을 좋아하며 소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비만도의 검사에서 太陰人이 비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고혈압자의 사상인 분포에서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은 太陰人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압자의 발생빈도도 태음인이 四象人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고지혈증과 사상인 분포에서 중성지방은 太陰人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太陰人에게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총콜레스테롤은 四象人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8. 간기능 효소와 사상인 분포에서 GPT, GGT는 太陰人이 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OT는 四象人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 초음파 검사에 의한 지방간의 발생빈도는 太陰人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 緒論

東武 李濟馬<sup>1)</sup>는 『東醫壽世保元』<sup>2)</sup>을 저술하여 사람을 네가지 體質로 구분하여 각각 性情의 편차로 인해 臟局의 差異가 나타나고, 四象人 각각의 生理, 病理까지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性質才幹, 體形氣象 및 容貌詞氣는 四象人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으며 『東醫壽世保元』의 病證論에서는 四象人의 生理·病理가 각기 다르므로 인해 각 체질의 體質證과 體質病證이 다름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四象醫學은 체질의학으로 일반인에게도 낮설지 않을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해결책을 각 個體의 特異性 즉, 體質에서 찾고자 하는 醫學界의 경향 때문이다. 각자 자신이 어느 體質에 해당되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體質을 알고 그에 따른 攝生法을 행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必光明 醫學 家家知醫 人人知病 然後可以壽世保元”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중의 의학인 四象醫學 創案 目的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四象人의 病證藥理가 張仲景나 宋·元明의 醫家에 의해 밝혀진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까지의 病證藥理와는 달라 醫家들이 그림자만 얻은 부분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up>3)</sup>.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는 스스로 각 四象人에 대해 완전한 病證藥理를 밝히지 못하였음을 언급하였다<sup>4)</sup>.

이러한 四象人 病證藥理의 임상적응외에 體質의 診斷과 각 體質의 特性에서도 많은 研究가 필

요하다. 그러나 四象人 體質診斷의 客觀化 研究나 四象醫學의 哲學的·醫學的 背景에 관한 研究는 활발히 지속되었으나 四象人 體質의 特性에 대한 研究는 비교적 소원하였다.

이에 본 研究는 좀 더 나은 四象人 體質 診斷과 體質의 特性을 파악하기 위해 경희의료원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내원한 196例 檢査者의 一般的 特性, 身體計測, 完實無病 조건인 땀, 대·소변, 수면상태, 그리고 21개 한·양방 檢査항목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각 사상체질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分析·考察하였고 이들로부터 나온 유의한 結論 및 多少의 知見을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 方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四象人의 각 체질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조사 연구이다.

### 2. 동서종합건강진단 항목

현재 경희의료원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21개 檢査 항목을 중심으로 각 四象人에 따른 특성을 살펴 보았다. 檢査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檢査 항목 : 일반사항, 신체계측, 혈압, 심전도 檢査, 폐기능 檢査, 안과 檢査, 청력 檢査, 혈액 檢査, 소변 檢査, 대변 檢査, 간염 檢査, 생화학 檢査, 특수 혈액 檢査, 면역 혈청 檢査, 갑상선 기능 檢査, 자궁세포진 檢査와 유방 X선 촬영을 통한 부인과 檢査, 흉부X선 檢査, 위내시경 檢査, 초음파 檢査, 치과 檢査, 경락공능검사로 양도락과 EAV, 한방맥진검사, 체질감별 설문조사<sup>5)</sup>

### 3. 연구 대상

경희대학교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95년 2월 3일부터 95년 5월 10일까지 내원하여 체질진단 설문조사에 동의하고 한방 전문의의 체질 판정을 받은 196례 검사자중 신체계측과 각종 검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던 155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96례는 한방 전문의의 체질진단 결과 太陰人 110명, 少陽人 28명, 少陰人 58명이었고 太陽人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SPSS PC+<sup>6)</sup> V4.0을 이용하였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각종 검사 소견, 체질중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할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사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사결과가 매트릭 자료인 경우에는 Oneway ANOVA 검정<sup>7)</sup>을 시행하여 四象人에 따라 유의성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진단명과 사상 체질감별을 위한 문진표의  $\checkmark$ 표시 응답은 명목척도<sup>8)</sup>이므로 비모수 통계법중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정<sup>9)</sup>을 시행하여 四象人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고 유의성이 인정된 검사 결과는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 Ⅲ. 結果 및 分析

본 연구에 참여한 검사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고, 四象人 체질 진단을 시행하여 四象人에 따른 일반사항의 특이성, 신체계측과 각종 검사결과와의 유의한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검사자의 일반적 특성

검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분포, 교육 정도를 살펴 보았다.

#### (1)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

이 연구에 참여한 검사자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는 2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2.84세이며 남자 43.45세, 여자 42.06세로 아래 『표 1』과 같다. 결측값 3례는 성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표 1. 성별 및 연령 분포

	남	여	총계
평균	43.45	42.06	42.84
20대	5	6	11
30대	25	19	44
40대	25	19	44
50대	36	28	64
60대	13	13	26
70이상	3	1	4
총계	107	86	193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 = 3

#### (2) 교육 정도에 따른 분포

교육 정도에 따른 분포는 아래 『표 2』와 같다. 결측값 58례는 교육정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표 2. 교육정도에 따른 분포

국민학교	22(15.9%)
중학교	14(10.1%)
고등학교	48(34.8%)
대학교	46(33.3%)
대학원	8(5.8%)
총 계	138(1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 = 58

#### (3) 직업에 따른 분포

검사자의 직업 분포는 아래 『표 3』과 같다. 결측값 65례는 직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표 3. 직업에 따른 사상인 분포  
( $\chi^2=35.27827$ ,  $df=20$ ,  $P=0.0187$ )

직업	빈도
주부	31(23.7%)
연구 및 전문직	6 (4.6%)
서비스직	18(13.7%)
사무 및 행정직	19(14.5%)
공업 및 기술직	6 (4.6%)
사기업경영	25(19.1%)
농수산업	7(5.3%)
예술 및 체육	2(1.5%)
의료보건직	1(0.8%)
학생 및 무직	12(9.2%)
단순 노무직	4(3.1%)
총 계	131(1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65

## 2. 체질 진단 설문 조사를 통한 四象人 구분

196례 검사자의 체질 진단을 시행하고 四象人의 일반적 분포, 진단과정의 문제점, 四象人에 따른 체질중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 (1) 검사자의 체질 진단

196례 검사자들에 대해 EAV와 양도락의 경락공능 검사<sup>10)</sup>, 맥진기를 이용한 한방 진맥검사<sup>11)</sup>, 사상 변증 내용 설문 조사지(I)<sup>12)</sup>, 사상 체질 분류 검사(QSCC I)<sup>13)</sup>, TH030<sup>14)</sup>, 및 문진표<sup>15)</sup>를 이용한 체질 진단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사상의학과 전문수련의 과정을 이수한 한의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체질이 진단되었다. 196례를 四象人으로 구분한 결과 太陰人 110례(56.1%), 少陰人 58례(29.6%), 少陽人 28례(14.3%)로 나타났다<sup>16)</sup>. 『東醫

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sup>17)</sup>과 비교하면 太陰人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少陰人이 少陽人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四象人에 따른 성별, 연령, 직업 분포의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해  $\chi^2$  검정을 시행한 결과 성별에 따른 四象人의 분포는 남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四象人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30代~60代는 太陰人 > 少陰人 > 少陽人의 순이고, 20代는 少陰人 > 少陽人 > 太陽人의 순으로 少陰人이 많았고, 70세 이상에서는 少陽人 > 太陰人의 순서이나, 빈도수를 고려할 때 20代가 전체 196례 중 11례(5.6%)이고 70세 이상은 전체 196례 중 4례(2.0%)에 불과하므로 통계학적 의의는 없어 각 연령대가 동일한 四象人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時代와 環境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체질은 불변한다는 사상의학상의 가설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연령대에 따른 사상인 분포의 차이  
( $\chi^2=21.13232$ ,  $df=10$ ,  $P=0.0202$ )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총 계
20대	1	6	4	11
30대	27	11	6	44
40대	30	11	4	45
50대	35	18	13	66
60대	16	9	1	26
70대	1	3	-	4
총계	110 (56.1%)	58 (29.6%)	28 (14.3%)	196 (1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0

직업 분포는 아래 표 5와 같이 四象人에 따라 유의성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P=0.0187$ ). 사무직·행정직은 太陰人 52.6%, 少陰人 42.1%, 少陽人

표 5. 직업에 따른 사상인 분포

( $\chi^2=35.27827$ ,  $df=20$ ,  $P=0.0187$ )

직업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총계
주부	16(51.6%)	14(45.2%)	1(3.2%)	31(23.7%)
연구 및 전문직	2(33.3%)	3(50.0%)	1(16.7%)	6(4.6%)
서비스직	9(50.0%)	3(16.7%)	6(33.3%)	18(13.7%)
사무 및 행정직	10(52.6%)	8(42.1%)	1(5.3%)	19(14.5%)
공업 및 기술직	2(33.3%)	2(33.3%)	2(33.3%)	6(4.6%)
사기업경영	17(68.0%)	4(16.0%)	4(16.0%)	25(19.1%)
농수산업	5(71.4%)	2(28.6%)	-	7(5.3%)
예술 및 체육	1(50.0%)	-	1(50.0%)	2(1.5%)
의료보건직	-	-	1(100.0%)	1(0.8%)
학생 및 무직	7(58.3%)	5(41.7%)	-	12(9.2%)
단순 노무직	4(100.0%)	-	-	4(3.1%)
총계	73(55.7%)	41(31.3%)	17(13.0%)	131(1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65

5.3%의 비율이었고, 주부는 太陰人 51.6%, 少陰人 45.2%, 少陽人 3.2%의 비율이었다. 사무직, 행정직과 주부는 陰人이 많고 陽人은 비교적 적음을 볼 수 있다. 연구전문직은 少陰人이 50.0%로 높았고, 서비스직은 少陰人이 16.7%인데 반해 少陽人 33.3%, 太陰人 50.0%로 나타났다<sup>18)</sup>. 이와는 달리 사기업경영은 太陰人이 68%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陰人은 한 자리에서 하는 직업과 한 가지에 전념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陽人은 보다 활동적인 직업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설문지와 한의사의 최종 판정과의 차이  
한의사의 四象人 진단과 체질진단 설문조사 결

과 들의 차이는 아래 『표 6』과 같다.

TH030에서는 검사자 192례(결측값 4례) 중 太陽人이 5례이나 의사의 최종 판정<sup>19)</sup>에는 太陽人이 없었다. 太陰人 101례 판정정확률 93.5%, 少陰人 47례 판정정확률 83.9%, 少陽人 23례 판정정확률 82.1%로 다른 설문조사보다 타당도가 높았다.

QSCC(I)에서는 검사자 185례(결측값 11례) 중 太陽人이 56례로 30.4%를 차지하고, 太陰人이 33례로 판정정확률 32.0%에 불과하고 다른 체질로 판정된 것이 100례 68.0%에 달한다. 少陰人 28례로 판정정확률 50.9%이고 다른 체질로 판정된 것은 27례 49.1%이다. 少陽人 11례로 판정정확률 42.3%이고 다른 체질로 판정된 것은 15례 57.7%이며, 특히 少陽人을 太陽人으로 판정한 것이 13

표 6. 각 설문지와 의사의 최종 판정과의 차이

설문지		한 의사판정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	TH030	4(3.7%)	1(1.8%)	-	
	QSCC(1)	32(31.1%)	11(20.0%)	13(50.0%)	
	1번 설문지	4(3.8%)	-	1(3.8%)	
少陽人	TH030	3(2.8%)	2(3.6%)	23(81.1%)	
	QSCC(1)	22(21.4%)	7(12.7%)	11(42.3%)	
	1번 설문지	9(8.7%)	4(7.3%)	11(42.3%)	
太陰人	TH030	101(93.5%)	6(10.7%)	2(7.1%)	
	QSCC(1)	33(32.0%)	9(16.4%)	1(3.8%)	
	1번 설문지	48(46.2%)	9(16.4%)	6(23.1%)	
少陰人	TH030	-	47(83.9%)	3(10.7%)	
	QSCC(1)	16(15.5%)	28(50.9%)	1(3.8%)	
	1번 설문지	43(41.3%)	42(76.4%)	8(30.8%)	
		Chi-Square	D.F.	Significance	Missing observations
TH030		265.45659	6	0.0000	4
1번 설문지		43.74408	6	0.0000	12
QSCC(1)		44.68635	6	0.0000	11

례 50.0%로서 少陽人으로 판정한 것보다 높았다. QSCC(1)에서는 다른 체질이 太陽人으로 판정되는 경향이 높았다<sup>20)</sup>.

1번 설문지에서는 대상 검사자 184례(결측값 12례) 중 少陰人 판정정확률 42례, 76.4%로 가장 높았고, 太陰人 판정정확률 48례로 46.2%, 少陽人 판정정확률은 11례, 42.3%이며 少陰人 판별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1)</sup>.

(3) 四象人의 체질중 차이

동서종합건진센타에서 체질증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문진표는 자료 모집 방법으로 自己報告式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응답 방법은 각 문항에 ✓

표시 응답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3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의 땀항목, 8개의 대변항목, 7개의 소변항목, 11개의 소화항목과 4개의 수면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개방형 질문 4문항<sup>22)</sup>은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수준<sup>23)</sup>은 명목 척도이며 문진항목과 四象人과의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정법을 시행하여 그 중 유의성있게 나타난 6문항(유의수준  $P < 0.05$ )에 대해서는 자료를 변환하여 四象人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땀 문항 중 四象人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평소 발한 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chi^2$  검정에서는 땀 1번 문항은 유의도  $P=0.001$ , 땀 2번 문항은 유의도  $P=0.0012$ 로 四象人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상관관계 검정에서는 太陰人은 땀을 잘 난다는 가설<sup>24)</sup>에 유의성이 있는 상관계수 0.2402의 정적상관관계로, 少陰人은 유의성 있는 -0.2476의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少陽人은 상관계수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태음인은 평소 땀을 잘 흘리는 경향이 있고 少陰人은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少陽人은 평소 발한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5)</sup>

소화 4번 문항, 四象人에 따른 평소 식욕<sup>26)</sup>의 여부는  $\chi^2$  검정에서는 유의도 P=0.006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四象人과의 상관관계 검정에서는 평소 식욕이 좋은 편이라는 가설에 太陰人은 유의성 있는 0.1660의 정적상관관계로, 少陰人은 유의성 있는 -0.2360의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

나 少陽人은 상관 계수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태음인은 평소 식욕이 좋은 경향이 있고 少陰人은 평소 식욕이 없는 경향인 것으로, 少陽人은 평소 식욕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화 5번 문항, 四象人에 따른 현재 식욕 여부는  $\chi^2$  검정에서 유의도 P=0.0107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상관관계 검정에서 현재 식욕이 좋다는 가설에 대해 太陰人은 유의성 있는 0.2515의 정적상관관계로, 少陰人은 유의성 있는 -0.2301의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少陽人은 상관 계수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태음인은 현재 식욕이 좋은 경향이 있고 少陰人은 현재 식욕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少陽人은 현재 식욕상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표 7. 사상 체질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항목의 상관관계

문 항		太 陰 人	少 陰 人	少 陽 人
땀1, 2번; 평소 땀이	① 잘난다 ② 잘 안난다	196* 0.2402** P=0.000***	196 -0.2476 P=0.000	196 -0.0176 P=0.403
소화4번; 평소 식욕이	① 없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171 0.1660 P=0.015	171 -0.2360 P=0.001	171 0.0737 P=0.169
소화5번; 현재 식욕이	① 없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165 0.2515 P=0.001	165 -0.2301 P=0.001	165 0.0556 P=0.239
소화10번; 평소 좋아하는 음식은	① 더운 음식 ② 가리지 않는다 ③ 찬 음식	172 0.1454 P=0.029	172 -0.2616 P=0.000	172 0.1301 P=0.044
소화 11번; 현재 좋아하는 음식은	① 더운 음식 ② 가리지 않는다 ③ 찬 음식	161 0.1338 P=0.045	161 -0.2497 P=0.001	161 0.1281 P=0.053

\* : Cases      \*\* : Coefficient      \*\*\* : 1-tailed Significance



다.

소화 10번 문항, 四象人에 따른 평소 좋아하는 음식의 寒熱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 보아  $\chi^2$  검정에서 유의도  $P=0.002$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상관관계 검정에서는 평소 찬 음식을 좋아한다는 가설에 대해 太陰人은 유의성 있는 0.1454의 정적상관관계로, 少陽人은 유의성 있는 0.1301의 정적상관관계로, 少陰人은 유의성 있는 -0.2616의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태음인과 少陽人은 찬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少陰人은 더운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화 11번 문항, 四象人에 따른 현재 좋아하는 음식의 寒熱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chi^2$  검정에서는 유의도  $P=0.0014$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상관관계 검정에서는 현재 찬 음식을 좋아한다는 가설에 대해 太陰人은 유의성 있는 0.1338의 정적상관관계로, 少陰人은 유의성 있는 -0.2497의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少陽人은 상관계수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四象人 각 체질의 完實無病의 조건인 땀, 대소변, 소화, 수면 상태중 소화·음식 관련 문항이 四象人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결과에 의하면 太陰人은 식욕이 좋고 찬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少陰人은 식욕이 없는 편이며 더운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화 1번 문항, 평소 소화 상태 여부는  $\chi^2$  검정에서 유의도  $P=0.0327$ 로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四象人에 따른 상관관계 검정에는 적절하지 않아<sup>27)</sup>  $\chi^2$  검정에서 측정된 빈도수로 살펴 『표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太陰人의 60.9%(67명), 少陽人의 74.1%(20명)가 '평소 소화가 잘 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

한 것에 반해 少陰人은 54.5%(26명)가 무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태음인과 少陽人은 평소 소화가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少陰人은 평소 소화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소화여부와 사상인과의 관계

표 기	응 답	무 응 답	총 계
太 陰 人	67 (60.9%)	43 (39.1%)	110 (56.7%)
少 陰 人	26 (45.6%)	31 (54.4%)	57 (29.4%)
少 陽 人	20 (74.1%)	7 (25.9%)	27 (13.9%)
총 계	113 (58.2%)	81 (41.8%)	194 (100%)

Number of missing observation = 2

### 3. 각종 검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四象人의 특성

일반적인 신체계측, 비만도, 혈압, 혈액검사 및 각종 검사 이상소견이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살펴 四象人의 체질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1)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

평균신장의 四象人간 차이는 Oneway Anova검정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은 유의수준  $P<0.05$ 에서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어 각 체질별 평균 체중은 태음인이 가장 무겁고 少陽人, 少陰人 순으로 나타나 少陰人이 가장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 (2) 비만도

표 9. 사상인에 따른 체중과 신장 비교

평 균	신 장 (162.78cm)	체 중 (62kg)
太 陰 人	162.26cm	66.18kg
少 陰 人	162.40cm	54.36kg
少 陽 人	166.39cm	59.72kg
사상인 비교	유의성이 없음	태음인>소음인, 소양인 소양인>소음인

비만의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BMI (Body Mass Index)<sup>28)</sup>를 이용하여 비만 정도가 四象人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Oneway ANOVA 검정에서 전체 155명의 평균 BMI는 23.38kg/m<sup>2</sup>, 太陰人 25.10kg/m<sup>2</sup>, 少陽人 21.50kg/m<sup>2</sup>, 少陰人 20.61kg/m<sup>2</sup>로 나타났다

며, 유의수준 P<0.01에서 BMI는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四象人 간 유의성있는 구분으로 태음인>少陰人, 태음인>少陽人으로 나타나 태음인의 비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BMI 단계와 四象人간의 교차 분석을 시행하여 아래 『표 1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상에 의하면 비만 3례는 모두 태음인으로, 과체중 45례 중 太陰人 41례(91.1%), 少陰人 3례(6.7%), 少陽人 1례(2.2%)로  $\chi^2$  검정 유의수준 P<0.01에서 비만 정도에 따른 四象人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음인이 가장 비만도가 높아 少陰人과 少陽人에 비해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에 따른 發汗 정도<sup>29)</sup>의 차이를 알아보기

표 10. 사상인 BMI의 분석 ( $\chi^2 = 30.19162$ , df=4, P<0.01)

비 만 도	太 陰 人	少 陰 人	少 陽 人	집단간의 비교
평 균 (전체평균:23.38kg/m <sup>2</sup> )	25.1kg/m <sup>2</sup>	20.61kg/m <sup>2</sup>	21.5kg/m <sup>2</sup>	태음인>소음인 태음인>소양인
비 만 (BMI>30)	3	-	-	3 (1.9%)
과 체 중 (25<BMI≤30)	41	3	1	45 (29.0%)
정 상 (BMI≤25)	48	42	17	107 (69.0%)
총 계	92 (59.4%)	45 (29.0%)	18 (11.6%)	155 (100.0%)

표 11. 비만도에 따른 발한의 정도 ( $\chi^2 = 8.98341$ , df=4, P=0.0615)

	비만	과체중	정상	총계
평소 . 땀이 잘안난다	1	10	45	56 (36.1%)
무 응 답	-	10	27	37 (23.9%)
평소 땀이 잘난다	2	25	35	62 (40.0%)
총 계	3 (1.9%)	45 (29.0%)	107 (69.0%)	155 (100.0%)

위해 BMI와 문진표의 '평소 땀이 잘 난다(안난다)' 문항 응답을  $\chi^2$  검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유의수준  $P<0.1$ 에서 비만도와 發汗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 비만도에 따른 發汗 정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 (3) 혈압

四象人에 따른 수축기·확장기 혈압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 보고 고혈압<sup>30</sup>과 四象人간의 교차분석을 시행하여 四象人 혈압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각기 Oneway ANOVA 검정으로 살펴 고혈압자와 정상인을 구분하여 四象人에 따른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정을 시행하여 아래 『표 12』의 결과를 얻었다.

표 12. 사상인에 따른 수축기혈압과 확장기 혈압 (단위: mmHg)

	수축기	확장기
평균	130.71	80.23
태음인	134.88	83.38
소음인	126.53	76.31
소양인	119.89	73.94
집단간의 비교	태음인>소음인 태음인>소양인	태음인>소음인 태음인>소양인

155례의 수축기혈압 평균은 130.71mmHg으로 Oneway ANOVA 검정 유의수준  $P<0.05$ 에서 수축기혈압의 四象人에 따른 유의성있는 차이 인정되어 太陰人수축기혈압이 少陰人, 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확장기혈압 평균은 80.23mmHg으로 Oneway ANOVA 검정 유의수준  $P<0.05$ 에서 확장기혈압의 四象人에 따른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어 太陰人少陰人, 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혈압 발생빈도가 四象人과 유의성이 있는지를 살펴기 위해 교차 분석을 통한  $\chi^2$  검정을 사

용하였다. 155례중 고혈압자는 53례(34.2%)였으며 유의수준  $P<0.1$ 에서 고혈압 발생빈도는 四象人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상인에 따른 고혈압의 분포

( $\chi^2 = 5.65770$ ,  $df=2$ ,  $P=0.0591$ )

	고 혈 압	정상 혈압	총 계
태음인	38	54	92(59.4%)
소음인	12	33	45(29.0%)
소양인	3	15	18(11.6%)
총 계	53(34.2%)	102(65.8%)	155(100.0%)

### (4) 빈혈

빈혈<sup>31</sup>의 발생빈도가 四象人에 따라 특이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Oneway ANOVA 검정과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四象人으로 구분하여 각 평균치로 四象人간의 유의성을 살펴 고 또한 빈혈자와 정상인으로 구분하여 四象人간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 보았다.

먼저 Hb과 Hct를 성별과 四象人에 따라 구분하여 Oneway ANOVA 검정을 시행하여 유의수준  $P<0.05$ 로 살펴 『표 1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4. 사상인에 따른 Hb, Hct의 유의성

	남		여	
	Hb(g/dL)	Hct(%)	Hb(g/dL)	Hct(%)
평균	16.32	45.70	13.5	39.43
태음인	16.76	42.53	13.16	38.45
소음인	16.00	42.53	13.16	38.45
소양인	15.12	44.38	13.33	39.38
집단간 비교	유의성이 없음	태음인 > 소음인	태음인 > 소음인	태음인 > 소음인

남자는 Hemoglobin은 四象人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Hematocrit는 四象人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어 태음인이 少陰人보다 혈액내 Hematocrit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Hemoglobin과 Hematocrit의 四象人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어 태음인의 혈액내 Hemoglobin과 Hematocrit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자와 정상인으로 구분하여 四象人에 따른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chi^2$  검정을 시행하였다. 155례 중 Anemia로 진단된 남자 7례, 여자 2례는  $\chi^2$  검정  $P<0.1$ 에서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사상인에 따른 빈혈자의 유의성 검정

	남	여
빈도수	7(8.3%)	2(2.8%)
태음인	3	1
소음인	3	-
소양인	1	1
유의성	$\chi^2=0.72099, df=2$ P=0.69733	$\chi^2=3.99066, df=2$ P=0.13597

(5) 고지혈증

고지혈증<sup>32)</sup> 발생빈도가 四象人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검정을 시행하여 아래 『표 1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콜레스테롤은 유의수준  $P<0.05$ 에서 四象人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성지질은 유의수준  $P<0.05$ 에서 四象人에 따른 혈액내 농도의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어 태음인이 少陰人·少陽人보다 혈액내 중성지질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간기능 효소

간기능 효소의 四象人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GOT, GPT, GGT를 Oneway ANOVA 검정을 시행하여 유의수준  $P<0.05$ 에서 『표 1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GOT(Aspartic Aminotransferase)는 평균이 24.72U/L, 太陰人 26.37U/L, 少陰人 23.11U/L, 少陽人 20.33U/L로 四象人간에 유의성 인정되지 않아

표 16. 사상인의 Total Choesterol과 TG 분석 (단위; mg/dl)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집단간유의성
총 콜레스테롤	평균(193.74)	197.08	186.96	193.67	없음
	표준편차(39.26)	42.30	36.16	28.59	
중성지방	평균(153.55)	168.53	136.40	119.83	태음인>소음인 태음인>소양인
	표준편차(88.14)	97.42	75.35	41.06	

표 17. GOT GPT GGT의 사상인에 따른 평균과 집단구분의 유의성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전체집단	집단간 유의성
GOT	평균	26.37	23.11	20.33	24.72	-
	표준편차	15.08	11.91	4.51	13.48	
GPT	평균	33.18	21.76	21.22	28.48	태음인>소양인
	표준편차	28.24	18.76	10.61	24.84	
GGT	평균	37.36	25.07	21.39	31.94	태음인>소양인
	표준편차	37.16	23.52	17.98	32.47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PT(Alanine Aminotransferase)는 평균이 28.48U/L, 太陰人33.18U/L, 少陰人 23.11U/L, 少陽人 20.33U/L로 四象人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어 太陰人이 少陽人보다 혈액내 GPT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GT(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도 평균이 31.94U/L, 太陰人37.36U/L, 少陰人 25.07U/L, 少陽人 21.39U/L로 나타나 四象人에 따른 혈액내 GPT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어 태음인이 少陽人보다 혈액내 GGT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공복시 혈중 Glucose

공복시 혈당이 四象人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 Oneway Anova 검정을 시행하여 유의수준  $P < 0.05$ 으로 살펴 보아 四象人에 따른 공복시 혈당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8) 갑상선 호르몬

四象人에 따른 갑상선질환 발생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갑상선질환 진단 근거가 되는 T3, T4, TSH의 혈중 농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아 유의수준  $P < 0.05$ 에서 四象人에 따른 T3, T4, TSH의 혈중농도의 특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각 검사에서 나타난 질환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들 중 신체계측, 혈액검사 이외의 각종 검사 즉,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 혈액 검사, 갑상선기능 검사, 간염 검사, 초음파 검사, 부인과 검사, 흉부 x선 검사, 위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진단받은 질환을 중심으로 四象人 집단에 따른 특이성을 교차 분석을 통한  $\chi^2$ 검정을 시

행하여 살펴 보았다(『표 18』 참조).

#### 가. 심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결과는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1$ 에서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나<sup>33)</sup> 많은 빈도를 나타낸 동서맥<sup>34)</sup>이나 우각차단의 경우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을  $\chi^2$  검정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성이 없어 각 四象人과 심전도 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 나. 청력 검사

앞의 『표 18』과 같은 이상결과가 나타났으며  $\chi^2$  검정을 시행하여 四象人에 따른 난청 종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 다. 안과 검사

$\chi^2$  검정을 통해 四象人에 따른 안질환의 특이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특정 체질의 안질환 발생이 유의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인과 안질환자로 구분하여  $\chi^2$  검정을 한 결과<sup>37)</sup> 통계학적 의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안질환자 17례의 四象人 분포가 太陰人 13례(0.76%), 少陰人 4례(0.24%)임을 고려해 볼 때 태음인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성 망막증 8례의 경우 통계학적 의의는 없으나<sup>38)</sup> 그 중 太陰人 6례, 少陰人 4례로 태음인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 라. 폐기능·흉부 X선 검사

폐기능·흉부 X선 검사 이상소견의 종류에 따른 四象人의 구분은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sup>39)</sup>. 빈도수가 높은 질환 즉, 세기관지 폐색, 비활동성 결핵과 환기장애를 중심으로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을  $\chi^2$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세기

표 18. 각종 검사의 이상소견 빈도

검사항목	이상 소견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빈도
심전도	동서맥	24	5	3	32
	우각차단	3	2	2	7
	심근허혈	2	1	-	3
	심실성 기외수축	1	1	1	3
	동성부정맥	-	-	1	1
	합계	30	9	7	46
폐기능 & 흉부X선	세기관지 폐색	10	6	2	18
	환기장애	5	3	-	8
	비활동성 결핵	3	3	1	7
	늑막비후& 삼출액	2	2	1	5
	결절성 음영	2	1	-	3
	세기관지 폐색과 결핵	1	1	1	3
	기관지염	1	-	-	1
	석회성 육아종	1	-	-	1
	양성 육아종	1	-	-	1
	육아종성 석회화	-	1	-	1
	합계	26	17	5	48
안질환	고혈압성 망막증	6	2	-	8
	근시성 안저	2	1	-	3
	고안압증	2	-	-	2
	동맥사행등 혈관변화	1	-	-	1
	망막전막	1	-	-	1
	성상초자체증	-	1	-	1
	시신경 장애	1	-	-	1
	합계	13	4	-	17
청력 질환	소음성 난청	8	3	2	13
	감각신경성 난청	6	4	1	11
	혼합성 난청	5	-	1	6
	고음역 청각 장애	3	3	1	7
	전음성 난청	3	4	-	7
	감각신경성과 고음역 장애	-	1	-	1
	전음성과 혼합성 난청	1	-	-	1
	소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	-	1	-	1
합계	26	16	5	47	
부인과 질환	성유낭종성 질환	11	11	3	25
	유방지방침착	13	1	1	15
	유방석회화	3	1	4	8

검사항목	이상 소견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빈도
부인과 질환	자궁염증소견	2	1	-	3
	유방종괴	1	-	-	1
	흉근의 파라핀 육아증	-	-	1	1
	유두종괴	-	-	-	-
	합계	30	14	9	53
위내시경 검사	경도의 표재성 위염	21	8	4	33
	만성 침윤성위염	4	1	-	5
	만성 위염	2	-	-	2
	위궤양	-	2	-	2
	위장 침식증	1	1	-	2
	급성 출혈성 위염	-	-	1	1
	식도 게실	1	-	-	1
	십이지장구의 비정상	1	-	-	1
	십이지장 궤양	1	-	-	1
	울혈성 위병증	-	1	-	1
	위,십이지장 궤양&만성위염	1	-	-	1
	표재성위염&위폴립	-	-	1	1
	표재성위염&식도 게실	-	1	-	1
	표재성위염&십이지장 폴립	1	-	-	1
합계	33	14	6	53	
초음파 검사	지방간	23	3	1	27
	신장낭종	5	3	2	10
	간낭종	-	3	-	3
	난소낭종	2	-	1	3
	간혈관종	2	-	-	2
	간디스토마	-	1	-	1
	간경화	1	-	-	1
	복수	-	1	-	1
	신장결석	1	-	-	1
	자궁근종	-	-	1	1
	자궁후경증	-	1	-	1
	질낭종	1	-	-	1
	지방간 간낭종	-	-	1	1
합계	35	12	6	53	

관지 폐색<sup>40)</sup>, 환기장애<sup>41)</sup>, 비활동성 결핵<sup>42)</sup> 모두 四象人에 따른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위내시경 검사

$\chi^2$  검정을 통해 四象人에 따른 위장질환 종류의 특이성이 있는지<sup>43)</sup>와 이상소견자가 어느 체질에 편중되어 있는지<sup>44)</sup> 살펴 본 결과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는 없었다.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05$ 에서 경도의 표재성 위염 33례를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으로 살펴 본 결과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sup>45)</sup>. 즉, 위장 질환은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이 없으며 경도의 표재성 위염도 四象人의 분포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 체질에 대한 특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간질환, 신장질환, 질·자궁질환등 여러 장기의 이상소견을 볼 수 있었으며 각 이상소견은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05$ 에서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장기를 단위로 하여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을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05$ 로 살펴 보았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간과 신장 질환에 대한 四象人의 특이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sup>47)</sup>. 그러나 27례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지방간은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을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05$ 로 검정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8)</sup>. 즉, 태음인이 少陰人이나 少陽人보다 지방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사. 부인과 검사

표 19. 지방간과 사상인과의 교차 분석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총 계
지방간	23	3	1	27(17.4%)
기타	69	42	17	128(82.6%)
총 계	92	45	18	155(100%)

자궁세포진 검사·흉부 X선 촬영을 통해 부인과 검사를 시행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chi^2$  검정을 통해 四象人에 따른 질환 종류의 차이를 살펴 유의수준  $P < 0.1$ 에서 四象人에 따른 각 질환의 특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또한 정상군, 유방질환군, 자궁질환군으로 분류하여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05$ 으로 살펴 본 결과도 유의성이 없어 四象人에 따른 특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0)</sup>. 빈도가 높은 섬유낭종성 질환과 유방 지방침착을 살펴 본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은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1)</sup>. 그러나 유방의 지방침착은  $\chi^2$  검정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四象人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음인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sup>52)</sup>.

표 20. 사상인에 따른 유방의 지방침착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Total
유방의 지방침착	13(86.7%)	1(6.7%)	1(6.7%)	15(9.7%)

이상에서 신체계측, 비만도, 혈압과 각종 검사 소견을 중심으로 사상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위의 결과를 얻었다.

## IV. 考 察



경희의료원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1995년 2월 3일부터 1995년 5월 10일까지 내원한 196례 검사자의 각종 검사결과를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四象人에 따른 특성을 살펴 보았다.

### 1. 四象人의 체질진단과 그 특성

196례의 검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상체질 진단을 시행한 결과 太陰人이 110례(56.1%), 少陰人 58례(29.6%), 少陽人 28례(14.3%)로 나타나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의 四象人 비율과 유사하나 太陰人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少陰人이 少陽人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성별, 연령, 직업분포에 따른 四象人의 차이를 살펴 보아 성별과 연령은 四象人에서 동일한 분포로 나타남을 확인하여 사상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四象醫學의 가설과 부합하였다. 그러나 직업에 따라서는 四象人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 太陰人은 사무직 행정직과 사기업 경영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少陰人은 연구전문직, 少陽人은 서어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東醫壽世保元·擴充論』의 四象人 性氣, 情氣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陰人은 靜하여 한 곳에 있으려 하며 자신의 것을 잘 챙기고 여성적 성향이니 사무직, 행정직등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陽人은 항상 일을 벌리고 마무리 짓지 못하며 바깥일에 能하니 서어비스직이나 공업 기술직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체질진단 설문조사

현재 경희의료원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들을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한의사의 최종 판정소견과 비교해 보아 1번 설문지는 少陰人 판정율이 76.4%로 높게 나타나고

QSCC(I)는 다른 체질이 태양인으로 판정되는 경향이 높아 체질진단 설문조사가 자기 특징을 지닐 수 있다.

### 3. 四象人의 체질증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사용하는 문진표의 체질증을 四象人에 따라 살펴 보아 땀, 식욕, 음식의 한열기호도, 소화상태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太陰人은 평소 땀을 잘 흘리는 경향이 있고 少陰人은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계측에서 太陰人의 비만도가 높게 나타나고 또한 비만도가 발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太陰人은 식욕이 좋으며 찬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소화가 잘 되는 반면, 少陰人은 식욕이 좋지 않으며 더운 음식을 좋아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脾小腎大라는 少陰人의 장기구조와 胃受寒裏寒病의 병리인 胃氣虛弱과 연관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위내시경 검사를 四象人에 따라 살펴본 결과와 연관하면 소화기계 질환은 四象人에 따른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3례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표재성 위염도 四象人에 따른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체질감별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식욕, 소화상태, 음식의 한열기호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太陰人은 少陰人보다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sup>53)</sup>. 그리고 표재성 위염의 경우 반드시 질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4. 太陰人의 특성

신체계측과 각종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했던 155례중 四象人 분포는 太陰人 92명(59.35%), 少陰人 45명(29.03%), 少陽人 18명(11.61%)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신체계측 결과와 각종 검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른 체질보다 太陰人에 대한 유의성있는 결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太陰人이 전체의 59.35%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각종 검사결과를 살펴볼 때도 太陰人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평균 신장은 四象人에 따른 유의성이 없었으며 평균 체중은 太陰人 > 少陽人 > 少陰人 순으로 太陰人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도 역시 太陰人이 少陰人과 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의 경우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太陰人이 少陰人과 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자와 정상인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에서도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太陰人이 고혈압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지혈증과도 연관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총콜레스테롤의 경우 각 사상체질간의 유의성을 살펴 보았으나 집단간의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중성지방의 경우 太陰人이 少陰人이나 少陽人보다 혈중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太陰人의 경우는 중성지방이 높은 형태의 고지혈증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OT는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GPT와 GGT의 경우는 太陰人이 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이 되었다. 이 결과를 살펴 보면 GOT의 경우는 심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GPT와 GGT는 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GOT에서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54).

또한, 초음파 검사결과 중 지방간 발생빈도를 四象人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太陰人이 少陰人이나 少陽人보다 지방간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검사의 소견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여성의 유방지방침착도 역시 太陰人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太陰人과 관련하여 일련의 일관된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太陰人은 다른 체질보다 체중이 무거우며 그에 따라 비만도도 높다. 혈중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아 혈압이 높으며 고혈압 발생빈도도 높다. 또한 간기능효소의 혈중 농도도 다른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지방간의 발생빈도도 四象人중 가장 높다.

이는 太陰人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慾火를 이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체질보다 욕심이 많아 다른 체질보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현대 성인병에 해당되는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병리적으로는 太陰人이 吸聚之氣가 過多하고 呼散之氣가 부족하여서 발생하고 太陰人의 치료 목표를 『東醫壽世保元·太陰人肝受熱裡熱病論』에서는 '蕩滌慾火, 恭敬其心'으로 제시하고 있다.

## V. 結 論

四象人 체질 진단과 체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희의료원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내원한 196례 검사자의 체질진단을 시행하고 각 四象人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신체계측, 완실무병 조건인 땀, 대·소변, 수면상태, 그리고 각종 검사소견을 살펴 아래의 결과를 얻었다.

1. 사상체질 진단 결과 太陰人 110명(56.1%), 少

陰人 58명(29.6%), 少陽人 28명(14.3%)으로 太陰人이 가장 많았고 少陰人이 少陽人보다 많았다.

2. 직업 분포는 사무직, 행정직, 주부는 太陰人과 少陰人, 연구전문직은 少陰人, 사기업 경영은 太陰人, 서어비스직은 少陽人이 많았다.

3. QSCC(1)은 다른 체질이 太陽人으로 진단되는 경향이 높고, 1번 설문지는 少陰人 판정 정확율이 76.4%로 높았다.

4. 太陰人은 땀이 잘 나고 少陰人은 땀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太陰人은 식욕이 좋으며 찬음식을 좋아하고 소화가 잘되나 少陰人은 식욕이 좋지 않고 더운 음식을 좋아하며 소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비만도는 太陰人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은 太陰人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자의 발생빈도도 四象人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중성지질은 太陰人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太陰人에게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총콜레스테롤은 四象人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8. GPT, GGT는 太陰人이 少陽人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OT는 四象人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 지방간의 발생빈도는 太陰人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학연사, 1995

4.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행림출판, 1963

5. 이을호 홍순용, 사상의학원론, 서울, 수문사, 1973

6. 이의주,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7.1, 1995

7. 사상체질분류검사(QSCC(1))의 타당화 연구, 김선호,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64, 1993

8.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9호 1985

9.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8호 1987

10. 김선호,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타당화 연구, 1992,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수범,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2. 나기성, 사상감별과 체질침, 생약과 한의약, 30호, 31호, 1978

13. 이정찬,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표준타당화 연구(성격요인검사와의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4. 허만희,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5. 이정찬, 사상체질분류 검사지(QSCC)II에 대한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6. 김선호, 사상체질분류 검사지(QSCC)II의 표준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7. 송일병, 이제마의 철학의 학문적 배경과 사상의학 성립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18. 송일병, 사상인의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성립과

## 참고 문헌

1.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나남출판사, 1994

2. 홍두승, 사회조사 분석, 서울, 다산출판, 1993

3. 채서일의 2인, SPSS PC+를 이용한 통계 분석,

정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6. No.1. 1994

19. Eugene Braunwald 外 5人,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11th),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각 주

1. 1837生-1900卒 조선말기의 유학자이며 한의학자로 본관은全州, 자는務平, 호는東武, 함경남도 함흥 출생
2. 1894년 李濟馬가 저술한 4卷 2冊의 목활자본으로 된 醫學書籍이다.
3. 少陰人病症藥理 張仲景庶幾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盡乎昭詳發明 少陽人病症藥理 張仲景半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庶幾乎昭詳發明 太陽人病症藥理 張仲景略得影子 而宋元明諸醫太半乎昭詳發明 太陽人病症藥理 朱震亨略得影子 而本草略有藥理.
4. 少陰少陽人論 則略得詳備 太陰太陽人論 則僅成簡約 蓋經驗未遍而精力 已憊故也. 記曰 開而不達則思 若太陰太陽人 思而得之 則亦何損乎簡約哉.
5. 이 중 소변검사, 대변검사와 치과검사는 검사결과의 의미가 낮아 분석하지 않았고, 경락공능 검사는 그 결과를 사상인에 따라 분석한 여러 연구가 있어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6. SPSS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의 약자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고 보다 쉽게 통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계전용 프로그램이며 SPSS PC+는 이를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7. 독립변수가 두 가지 이상의 값을 갖는 명목자료일 때, 즉 집단구분이 두 개 이상일 때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일원변량분산분석이다.
8. 변수의 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다. 명목척도는 변수의 특성을 몇 개의 유목으로 나누어 각 유목의 빈도를 알아내는데 쓰이는 척도이다.
9.  $\chi^2$  검정은 명목 변수에 있어서의 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변수간의 독립성을 영가설로 설정하고 상호 통계적 독립성을 검정하는 것이며 기대치와 관찰치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적합도 검중이라고도 불리운다. 명목변수에 있어서 관계란 한 변수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변수가 특정범주에 속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나를 가리킨다.

10. EAV와 양도락을 이용하였다.
11. 맥진기를 이용 \*
12. 이의주,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7.,1995 이하에서 1번 설문지로 칭하기로 한다.
13. 김선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의 타당화 연구, 김선호, 서울, 경희대 석사 학위논문, 1993 이하에서는 QSCC(I)로 표시한다.
14. TH030은 Program화된 체질 감별 방법이나 이번 자료에서 TH030으로 판단된 체질은 한방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있는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의 사상 체질이다.
15. 경희의료원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사용하는 문진표로 논문 끝에 첨부한다.
16. 경락공능 검사, 맥진기, 체질감별 문진표와 수련의 과정에 있는 한의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사상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한의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감별되었다.
17.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一縣萬人數大略論之, 即太陰人五千人也, 少陽人三千人也, 少陰人二千人也, 太陽人數絕少, 一縣中, 或三四人十餘人而已. 『東醫壽世保元·四象辨證論』
18. 太陰人の 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太陰人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전체 중 太陰人 비율이 57%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少陽人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의사의 최종 판단은 사상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한의사가 판단한 사상 체질이다.
20. 이는 김선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1))의 타당화 연구, 1993,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21.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에 의한 체질 점수로 체질 판별시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 체질을 감별하면 소양인이 35%이고 太陰人 34.4%이고 少陰人은 83.0%의 판단율로 少陰人에게 있어서 높은 정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李義柱,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査紙(I)의 妥當化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5年 8월에 잘 나타나 있다.
22. 소화와 관련된 문항 '소화가 안 될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음식을 가리는 것이 있는가?' '음식중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찬 음식을 먹으면 어디가 불편한가?'의 4가지 개방형 문항은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23. 측정 수준은 척도에 따라 다르다. 척도는 변수의 특성을 숫자나 기호로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측

정 수준에 따라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순으로 각 척도가 담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며 보다 정밀한 분석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24. 땀이 잘 안난다는 응답은 1점, 무응답은 2점, 땀이 잘 난다는 응답은 3점으로 처리하였다.
25. 少陽人은 여러 항목에서 살펴본 상관계수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자료에서 少陽人의 비율이 전체의 14%로 27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6. 이 문항에서는 평소 식욕이 없는 편이다 1점, 보통이다 2점, 좋은 편이다 3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27. 척도의 구성이 명목척도로 되어 있어 상관관계 검정을 시행할 수 없었다.
28. BMI(body mass index)는 가장 흔한 비만도 측정 방법으로 BMI > 30 일 경우는 비만, 25 < BMI ≤ 30일 경우는 과체중에 해당된다.  

$$\text{BMI}(\text{body mass index}) = \frac{\text{체중}(\text{kg})}{[\text{키}(\text{m})]^2}$$
29. 이것은 검사자들이 체질감별문진표에 '평소 땀이 잘 안난다', '평소 땀이 잘 난다' 와 '무응답'으로 분류한 주관적 표현에 근거한 것이다.
30. 정상혈압과 고혈압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으나 심혈관계의 합병증을 증가시키는 혈압을 기준으로 확장기 혈압은 90mmHg, 수축기 혈압은 140mmHg이상일 경우를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31. 빈혈은 순환 적혈구의 양이 조직내 산소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감소된 상태로써 혈액내 Hemoglobin과 Hematocrit로 진단한다. 여자는 혈액내 Hemoglobin이 12g/dL이하이고 Hematocrit가 37% 이하인 경우로 진단하며, 남자는 혈액내 Hb<12g/dL이고 Hct<37%인 경우로 진단한다.
32. 고지혈증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나 고중성지방혈증인 경우로 Total-Cholesterol은 정상치가 130-250mg/dl이며 Triglyceride는 정상치가 50mg/dl-130mg/dl이다.

33.  $\chi^2 = 16.00861$ ,  $df=10$ ,  $P=0.09939$
34. 동서맥의 경우 심전도에서 동서맥을 진단 받은 집단과 사상인집단간의 교차분석에서  $\chi^2=4.33362$ ,  $df=2$ ,  $P=0.11454$  로 영가설을 부정할 수 없어 표본 155례의 동서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35.  $\chi^2 = 12.77780$ ,  $df=16$ ,  $P=0.68893$
36.  $\chi^2 = 7.93503$ ,  $df=14$ ,  $P=0.89268$
37.  $\chi^2 = 3.35895$ ,  $df=2$ ,  $P=0.18647$
38.  $\chi^2 = 1.37470$ ,  $df=2$ ,  $P=0.50291$
39.  $\chi^2 = 9.85273$ ,  $df=20$ ,  $P=0.97076$
40.  $\chi^2 = 0.18731$ ,  $df=2$ ,  $P=0.91224$
41.  $\chi^2 = 1.20198$ ,  $df=2$ ,  $P=0.54827$
42.  $\chi^2 = 0.86389$ ,  $df=2$ ,  $P=0.64924$
43.  $\chi^2 = 31.91460$ ,  $df=28$ ,  $P=0.27800$
44.  $\chi^2 = 0.31078$ ,  $df=2$ ,  $P=0.85608$
45.  $\chi^2 = 0.97062$ ,  $df=4$ ,  $P=0.97062$
46.  $\chi^2 = 44.25894$ ,  $df=26$ ,  $P=0.01417$
47.  $\chi^2 = 10.60601$ ,  $df=10$ ,  $P=0.38903$
48.  $\chi^2 = 9.05338$ ,  $df=2$ ,  $P=0.01082$
49.  $\chi^2 = 19.56047$ ,  $df=14$ ,  $P=0.14462$
50.  $\chi^2 = 0.82935$ ,  $df=4$ ,  $P=0.93447$
51.  $\chi^2 = 3.48805$ ,  $df=2$ ,  $P=0.17482$
52.  $\chi^2 = 5.29833$ ,  $df=2$ ,  $P=0.07071$
53. 체질감별 설문조사에서 태음인은 평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음인은 평소 소화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장질환 발생율은 사상인체질의 특이성이 없이 사상인의 분포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54. GPT가 심근에 71.000Karmen units/1g, 간에 440.000 Karmen units/1g로 분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GOT는 심근에 156,000 Karmen units/1g, 간에 142,000 Karmen units/1g로 분포되어 있다.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 centering on the body measures and diagnosis results -

*Su-Kyung Lee*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 Byung-Hee Ko, O.M.D., Ph.D.)*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 the examinee of Kyung Hee medical center was diagnosed constitution, and resulted body measures and diagnosis. That was consider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Diagnosis resul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that there are 110 persons of Taeum-In(56.1%), 58 persons of Soeum-In(29.6%), 28 persons of Soyang-In(14.3%).
2. The distribution of occupation, there are many of Taeum-In who are engag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many of Soeum-In who are engaged in research.
3. QSCC(I) has a tendency that other constitutions diagnose to Taeyang-In, the questionnaire 1 has the accuracy of 76.4% to diagnose Soeum-In.
4. Taeum-In sweats easily but Soeum-In doesn't sweat easily, Taeum-In has a good appetite and likes cold food and digests well, but Soeum-In has a poor appetite and likes hot food and digests poorly.
5. The degree of obesity is the highest in Taeum-In.
6. The systolic blood pressure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is high in Taeum-In and the high blood pressure are frequent in Taeum-In.
7. Triglyceride is the highest in Taeum-In and the Hyperlipidemia is the most frequent in Taeum-In, but Total cholesterol has no difference among constitutions.
8. GPT GGT is higher in Taeum-In than Soyang-In, but GOT has no difference among constitutions.
9. The frequency of fatty liver is the highest in Taeum-In.

## 附 錄

### 문진표\*

#### 땀

1. 평소 땀이 잘 난다 (        )
2. 평소 땀이 잘 안난다 (        )
3. 가끔 열감을 느끼면서 땀이 난다 (        )
4. 요즘은 땀이 잘 난다 (        )
5. 요즘은 땀이 잘 안난다 (        )
6. 밤에 잘때 땀이 잘 난다 (        )
7. 어느 부위에 주로 땀이 납니까 ( ① 손, ② 발, ③ 머리, ④ 전신 )

#### 대변

1. 평소 대변 횟수 ( 일 회)
2. 현재 대변 횟수 ( 일 회)
3. 평소 규칙적인 시간에 본다 ( ① 예 ) ( ② 아니다 )
4. 현재 규칙적인 시간에 본다 ( ① 예 ) ( ② 아니다 )
5. 평소 대변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 분)
6. 현재 대변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 분)
7. 평소 대변 상태가 어떤가 (① 굳다, ② 연하다, ③ 굳다가 연하다한다)
8. 현재 대변 상태가 어떤가 (① 굳다, ② 연하다, ③ 굳다가 연하다한다)

#### 소변

1. 평소 소변이 자주 마려운가 (    )
2. 현재 소변이 자주 마려운가 (    )
3. 평소 소변이 시원한 편인가 (    )

---

\* 동서종합건강진센터에서 체질증을 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4. 현재 소변이 시원한 편인가 ( )
5. 평소 소변량이 충분한가 ( )
6. 현재 소변량이 충분한가 ( )
7. 밤에 소변을 몇 회나 보나 ( 회)

## 소화

1. 평소 소화가 잘 되는가 ( )
2. 현재 소화가 잘 되는가 ( )
3. 소화가 안 될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 )
4. 평소 식욕은 (① 없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5. 현재 식욕은 (① 없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 편이다)
6. 평소 식사량은 (① 1공기 이하, ② 1공기, ③ 1공기 이상 )
7. 현재 식사량은 (① 1공기 이하, ② 1공기, ③ 1공기 이상 )
8. 음식을 가리는 것이 있는가 ( )
9. 음식 중 좋아하는 것은 있는가 ( )
10. 평소 좋아하는 음식은 (① 더운 음식, ② 가리지 않는다, ③ 찬 음식)
11. 현재 좋아하는 음식은 (① 더운 음식, ② 가리지 않는다, ③ 찬 음식)
12. 찬음식을 먹으면 어디가 불편한가 ( )

## 잠

1. 평소 잠을 잘 잔다 ( )
2. 현재 잠을 잘 잔다 ( )
3. 평소 잠을 잘 못잔다  
(① 잠이 잘 안든다, ② 자다가 자주 깬다, ③ 꿈을 많이 꾸다)
4. 현재 잠을 잘 못잔다  
(① 잠이 잘 안든다, ② 자다가 자주 깬다, ③ 꿈을 많이 꾸다)



## 동서종합건강진단결과표

경희의료원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  
130-7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1  
TEL: 958-8711~3 FAX: 958-8714

### 일반사항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건강진단일자		전화번호	
주소			

### 신체계측

신장	cm	체중	kg
비만도	%	표준체중	kg
지방량	kg	지방율	%

### 혈압

수축기(최고)	mmHg	이완기(최저)	mmHg
맥박	회/분	(정상혈압: 최고140, 최저 80 미만)	

### 심전도 검사

### 폐기능 검사

노력성 폐활량	l	1초간호기량/폐활량비	%
1초간노력성호기량	l	최고호기유속	l/sec
노력성호기중간유량	l/sec	판정	

### 안과 검사

구분	좌	우
시력	나안(     ) 교정(     )	나안(     ) 교정(     )
안압	mmHg	mmHg
안저		
색각		

**청력 검사**

주파수(Hz)	좌	우
1 0 0 0 Hz	dB	dB
2 0 0 0 Hz	dB	dB
4 0 0 0 Hz	dB	dB
8 0 0 0 Hz	dB	dB

**혈액 검사**

백혈구 (남: 4.8-10.8) (여: 4.2-5.4)	10 <sup>3</sup> /mm <sup>3</sup>	M C H (남: 27-31) (여: 33-37)	PG
적혈구 용적 (남: 42-52) (여: 37-47)	%	적혈구 침강 속도 (남: 0-10) (여: 0-20)	mm/hr
M C V (남: 80-94) (여: 81-99)	fL	혈액형 (ABO/Rh)	
적혈구 (남: 4.7-6.1) (여: 4.2-5.4)	10 <sup>6</sup> /mm <sup>3</sup>	M C H C (남: 33-37) (여: 33-37)	g/dL
혈색소 (남: 14-18) (여: 12-16)	g/dL	혈소판 (남: 130-400) (여: 130-400)	10 <sup>9</sup>

**백혈구 분포상**

관상핵과립구	%	단핵구	%
호중구	%	호산구	%
림파구	%	호염기구	%
기타			

**소변 검사**

요당 (-)	- ± + ++ +++ +++++	요단백 (-)	- ± + ++ +++ +++++
Bilirubin (-)	- ± + ++ +++ +++++	Urobilinogen (±)	- ± + ++ +++ +++++
Ketone (-)	- ± + ++ +++ +++++	Nitrite (-)	- ± + ++ +++ +++++
S.G (1.005-1.030)		적혈구 (0-3)	/HPF
요잠혈		백혈구 (0-3)	/HPF
PH (4.6-8.0)		기타	

**대변 검사**

기생충	원충
잠혈	- ± + ++ +++ +++++

**간염 검사**

B형간염S항원 (HBsAg)		B형간염C항체 (Anti-HBc)	
B형간염S항체 (HBsAb)		C형간염항체 (Anti-HCV)	

생화학 검사

T/D Bilirubin (T: 0.2-1.1, D: 0-0.5)	T: D: mg/dL	CK (38-160)	U/L
총콜레스테롤 (130-250)	mg/dL	BUN (8-23)	mg/dL
ALK-phosphatase (39-117)	U/L	Creatinine (0.6-1.2)	mg/dL
총단백 (5.8-8.0)	g/dL	요산 (남: 3.0-8.3, 여: 2.5-6.3)	mg/dL
알부민 (3.1-5.2)	g/dL	Phosphorus (2.5-5.5)	mg/dL
AST(GOT) (<40)	U/L	Calcium (8.4-10.2)	mg/dL
ALT(GPT) (<40)	U/L	중성지방 (50-130)	mg/dL
GGT (<50)	U/L	HDL-콜레스테롤(35-55)	mg/dL
공복시혈당 (76-110)	mg/dL	K (3.5-5.0)	mmol/L
LD (218-472)	U/L	Na (135-145)	mmol/L

특수혈액 검사

A F P (≤20)	ng/ml	C E A (≤2.4)	ng/ml
-------------	-------	--------------	-------

면역 혈청 검사

VDRL (매독검사)	류 마 티 스 인 자	iU/ml
C R P	H I V (A I D S)	

갑상선 기능검사

T 3 (80-200)	ng/dL	T 4 (5-13)	ug/dL
T S H (0.4-5.0)	uU/ml		

부인과 검사

자궁세포진검사	
유방 X-선촬영	

흉부 X-선 검사

--

위장촬영 또는 위내시경검사

--

초음파 검사

[Empty box for ultrasound examination notes]

치과검사 및 소견

[Empty box for dental examination and findings notes]

한방검사 및 소견

[Empty box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amination and findings notes]

종합판정

[Large empty box for overall assessment and conclusions]